

Recommendation

The Presbytery of _____ overtures the 223rd General Assembly to

_____ 노회는 제 223 회 총회에 다음을 제안합니다.

1. Commend the Board of Pensions and Presbyterian Foundation for creating fossil free options for participants, and the Mission Responsibility Through Investment Committee for increased engagement with companies in the Fossil Fuel industry-- actions that embody the beginning of a faithful response to the devastating and urgent reality of climate change.

The Board of Pensions 와 장로회 재단이 참석자들을 위해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선택안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Mission Responsibility Through Investment 위원회가 화석 연료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들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가질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막대하고 급박한 기후변화 현실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답변의 출발점이 되는 행동입니다.

2. Recognize that by continuing to hold investments in the fossil-fuel companies that most egregiously contribute to the climate crisis, the PC(USA) is complicit in harming God's creation and "the least of these" who are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가장 악독하게 기여하는 화석 연료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과 기후변화로부터 불균등한 영향을 받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를 가하는 일에 미장로교회가 동참하는 것임을 인식합니다.

3. Direct the Board of Pensions and the Presbyterian Foundation to divest from the fossil fuel industry.

The Board of Pensions 와 장로회 재단이 화석 연료 산업으로부터 투자를 철회하도록 감독합니다.

4. Direct the Board of Pensions and the Presbyterian Foundation to actively seek out and invest in securities of companies whose predominant focus is in renewable and/or energy efficiency.'

The Board of Pensions 와 장로회 재단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에 중점을 두는 기업들이 안정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그런 방법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감독합니다.

5. Direct the Board of Pensions and the Presbyterian Foundation to report to the 224th General Assembly (2020) about their progress in effecting recommendations 3 and 4.

The Board of Pensions 와 장로회 재단이 2020 년에 있을 제 224 회 총회에서 3 번과 4 번 제안이 가져오는 진전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감독합니다.

Rationale

People on the front lines of climate change, particularly people of color, are disproportionately impacted by climate change. Countless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among "the least of these" have prophetically called upon the world to divest from fossil fuels. Earlier this year, for example, Ladonna Brave Bull Allard, one of the Native Water Protectors at Standing Rock said, "We will be everywhere to let people know that there's a better way to live, there's a better way to live with the Earth, with green energy, and that it's time for us now to start divesting from fossil fuel, because we must save the water. We must save the water." We are thus called to take prophetic action in light of these voices and the imminent dangers on which they shed light.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 특히 유색인종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불평등하게 받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 수많은 개개인과 기관들이 예언자적인 목소리로 화석연료로부터의 투자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탠딩 록(Standing Rock)에 위치한 네이티브 워터 프로텍터스(Native Water Protectors)의 한 사람인 라돈나 브레이브 볼 알라드(Ladonna Brave Bull Allard)는 올해 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어디에나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 연료를 이용함으로써 지구와 함께 사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목소리들과 임박한 위험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러한 예언자적 조치를 취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The PC(USA) has debated divestment from the fossil fuel industry during the last two General Assemblies (221st in 2014 and 222nd in 2016).

미장로교회는 지난 두 번의 총회(2014 년도 221 회 총회, 2016 년도 222 회 총회) 동안 화석연료산업에 대한 투자철회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In 2014, the Presbytery of Boston sent the overture “On Divestment from Fossil Fuel Companies” with 11 presbyteries concurring.

2014 년, 보스턴 노회는 11 개의 노회와 의견을 같이하여 “화석연료 기업들로부터의 투자철회에 대하여”라는 제안을 보냈습니다.

In 2016, the Presbytery of San Francisco sent the overture “On PC(USA) Fossil Fuel Divestment” with 31 presbyteries concurring.

2016 년, 샌프란시스코 노회는 31 개의 노회와 의견을 같이하여 “미장로교회 화석연료 투자철회에 대하여” 라는 제안을 보냈습니다.

Prior to the 222nd Assembly, nine former moderators signed a letter urging the commissioners to support the overture to divest.¹ Their reasoning included, “because of the grave and urgent threat of climate change and the fossil fuel sector’s well-documented and unyielding refusal to change, it is no longer morally or ethically right for the PC(USA) to profit from companies that are creating ecological destruction and human suffering on such a monumental scale.”

제 222 회 총회 이전, 아홉 명의 전(前) 조정자들은 위원들에게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철회 지지를 권고하는 편지에 서명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심각하고 시급한 기후변화의 위협과 화석연료 분야의 변화에 대한 완고한 거절을 염두할 때, 더 이상 도덕적 혹은 윤리적으로 미장로교회가 엄청난 규모로 생태계 파괴와 인류의 고통을 야기하는 기업들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Our denomination has already recognized the moral mandate for humanity to shift to a sustainable energy plan in a way that is both just and compassionate, not least of which includes the support of carbon neutrality in 2006. These statements have all been founded on the biblical call to love and care for creation.

우리 교단은, 2006 년의 탄소 중립 지지를 포함한 정의롭고 자애로운 방법으로, 인류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계획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도덕적 명령을 이미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성명들은 모두 창조물을 사랑하고 돌보라는 성경적 부르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¹ <http://www.fossilfreepcusa.org/moderators-letter/>

We have actively worked as a denomination to reduce our use of fossil fuels and shrink our carbon footprint in our congregations and individual lives. These biblical and denominational mandates compel us to look at our collective investments.

우리는 교단으로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우리 회중과 개개인의 삶 속의 탄소발자국을 축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해왔습니다. 이러한 성서적이고 교단적인 권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공동체적인 투자를 살펴보도록 만듭니다.

As a denomination, we have long held that we cannot profit from the companies whose policies are harmful to any living thing. For nearly a century, the church has not invested in companies producing alcohol, tobacco, gambling, the military, or those that contribute to violations of human rights. The General Assembly thus declared in 1968, “the [Church’s] power to spend and to invest includes the power to refrain from spending or investing. The church has not only the right but the responsibility to be selective in the use of its funds.”

우리는 교단으로서, 살아있는 어떤 대상이라도 해를 가하는 방침들을 보유한 기업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는 없다고 오래도록 생각해왔습니다. 거의 한 세기동안, 교회는 술, 담배, 군수품을 생산하거나 도박에 관련된 기업, 인권침해에 기여하는 기업들에게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회는 1969년에 다음을 선언했습니다. “교회의 소비력과 투자력은 소비나 투자를 억제하는 능력도 포함합니다. 교회는 기금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도 갖고 있습니다.”

The General Assembly reinforced this form of stewardship in 1992, affirming that it does not and will not invest in any “sin stocks.” In addition to these broad industries, General Assemblies have also divested from the Duke Energy coal mining company because of its treatment of its workers, Chevron after it sold fuel to the South African apartheid government, Talisman Energy for building a pipeline in Sudan that threatened human rights, and Hewlett Packard, Caterpillar, and Motorola for profiting from human rights abuses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1992년, 총회는 “죄 있는 자본”에 투자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며 이런 형태의 청지기적 자세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분야의 산업에 더해, 총회들은 또한 다음과 같은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철회해왔습니다. 총회는 근로자 처우 문제를 이유로 듀크 에너지 석탄 채굴 회사(Duke Energy coal mining company)로부터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총회는 쉘브론(Chevron)이 남아프리카 아파테이트 정부에 연료를 판매한 이후 해당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총회는 인권을 위협하는 송유관을 수단(Sudan)에 건설한 탈리스맨 에너지(Talisman Energy)로부터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총회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인권침해를 통해 수익을 얻은 휴렛 팩카드(Hewlett Packard), 캐터필러(Caterpillar), 모토롤라(Motorola)로부터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Some of these divestment actions came after a long process of corporate engagement by the church's Mission Responsibility Through Investment (MRTI) committee. Other divestment decisions were made outside the realm of MRTI.

이러한 투자철회 행위의 일부는 교회의 Mission Responsibility Through Investment (MRTI) 위원회를 통한 기업 참여의 오랜 과정으로부터 이뤄져왔습니다. 다른 투자철회 결단들은 MRTI의 영역 밖에서 이뤄졌습니다.

Climate change represents deep harm to the whole biosphere, including especially marginalized people, so it is imperative that we would divest from the industry most responsible for that harm, as outlined in the Carbon Underground 200² list

기후변화는 특히 소외된 사람들은 포함하여 모든 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카본 언더그라운드 200(Carbon Underground 200) 명단에 나와있듯, 이런 가해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산업들로부터 반드시 투자를 철회해야 합니다.

And already as a denomination we are taking some steps. The Foundation has introduced financial products that provide comparable return on investment without supporting fossil fuel companies, and the Board of Pensions has a fossil-free option for their 403-B plan. Synods, presbyteries, congregations and individuals have moved their investments to such funds, and we commend them for doing so.

그리고 이미 교단으로서 우리는 몇몇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The Foundation은 화석연료 기업들을 지지하지 않고도 투자에 대한 비슷한 수익을 제공하는 재정상품들을 소개해왔습니다. 그리고 the Board of Pensions는 그들의 403-B 계획을 위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선택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ynods, 노회들, 회중들과 개인들은 그러한 기금에 대한 투자를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행한 데에 대하여 찬사를 보냅니다.

But while these actions among individuals and various Presbyterian entities are faithful responses to the growing crisis of climate change, they fall far short of the institutional actions

² <http://fossilfreeindexes.com/the-carbon-underground/> The Carbon Underground 200 is an annually updated listing of the top 100 public coal companies globally and the top 100 public oil and gas companies globally, ranked by the potential carbon emissions content of their reported reserves. The list is produced and maintained by Fossil Free Indexes, LLC.

necessary to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It is time for fossil free investments to be the norm instead of the option.

개인들과 다양한 장로회 독립체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증가하는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신앙적인 대응입니다. 반면, 그들은 중대한 차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직적 차원의 대처가 부족합니다. 이제는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는 데에 대한 투자가 선택 대신 규범이 될 때가 되었습니다.